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18일 목요일 음 5월 4일 (11월)

목요일답론

기상정보

흐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2℃, 낮 최고기온은 26℃로 예상된다. 아침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빗방울이 있으니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data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자외선지수 높음 산물위험지수 낮음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PM10, PM2.5) and pollen count.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1/27℃, 모레 흐리고 비 22/27℃

월드뉴스

미국·이란 19일 뷔르겐슈토크서 종전 서명식

제네바서 변경... 경호 등 고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공식 서명식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휴양지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다고 스위스 정부가 16일 밝혔다.

서명식은 당초 유엔 사무국 등 국제기구가 모여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고 알려졌다. 스위스 외무부는 미국과 이란, 중재국 파키스탄·카타르가 뷔르겐슈토크를 서명식 장소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미 지난 14일 MOU에 전자 서명했으며,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는 공식 서명식 이후 후속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왼쪽)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뷔르겐슈토크는 스위스 중부 니드발덴주의 알프스 산악지대 휴양지로, 2024년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열린 곳이다.

서명식 장소가 제네바에서 변경된 데에는 일반인 접근이 어려워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명식이 열리는 리조트는 카타르 국부펀드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어 카타르가 행사 주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웅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동요 중에는 '길 가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 중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이라는 구절이 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그 노래처럼 차는 오른쪽, 사람은 왼쪽으로 당연히 다녀야 한다고 배웠다. 해가 뜨면 집을 나서고 해가 지면 다시 돌아오는 일상처럼 도로 위의 질서도 자연스럽게 몸에 익은 생활의 한 부분이다. 집 밖으로 나서면 누구나 도로를 만난다.

차가 다니는 차도와 사람이 걷는 보도, 그리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생활도로까지, 도로는

길 위의 질서, 서로를 지키는 약속

단순히 이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서로가 함께 사용해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도로는 차선의 넓이나 차선수에 따라 소로와 중로, 대로 등으로 구분되며, 일상생활에서 통근, 업무, 등교, 쇼핑 등을 위해 이동할 때도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보행 문화는 2010년을 전후해 우측보행 원칙을 중심으로 정비됐다. 하지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생활도로에서는 차량을 마주 보고 걷는 것이 차량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고 대응할 수 있어서 안전하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오랜 습관과 새로운 기준이 하루아침에 정착되기 어려운 데다, 생활도로에서는 여전히 보행자가 차량이나 외부 위험 요인들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걷느냐만이 아니다. 도로 위에서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고, 항공기가 항로와 고도를 지키며, 배가 정해진 항로를 따라 움직이듯 사람의 보행에도 기준과 배려가 필요하다. 작은 질서가 무너지면 사고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회전교차로가 대표적인데, 도입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 중 누가 우선인지 헷갈리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서행하고,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 양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행자가 차량이나 외부 위험 요인들에서

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때로는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도시는 서로 간의 약속과 지켜야 할 규칙을 바탕으로 유지된다. 차량이나 보행자나 신호를 지키고, 방향을 지키고, 차를 지키는 일은 거창한 준법정신의 문제가 아니다. 서로를 불안하게 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 질서이다. 생활도로에서 안전은 행정의 노력이나 시설 정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길을 걷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약속을 지킬 때 비로소 안전은 일상이 된다. 사람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걸을 수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려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은 방향이어야 한다.

열린마당

돌아온 전국체전, 제주의 힘을 보여줄 때다



박현미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기획홍보과장

천혜의 자연을 품은 평화의 섬 제주가 다시 한번 뜨거운 스포츠 열기로 들썩이고 있다.

오는 10월 대한민국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12년 만에 제주에서 개최된다.

17개 시·도와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넘는 이들이 제주를 찾는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연을 넘어 제주 공동체의 저력과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최고의 기회다. 전국체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대규모 선수단과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소비지출을 통한 직접적인

신중 피싱 범죄, 의심은 멈추고 확인은 반드시



배남철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경사

최근 피싱 범죄는 단순한 보이스 피싱을 넘어 공공기관과 기업을 사칭하는 등 더욱 정교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학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기관 사칭 피싱'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범죄자들은 소방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며 "소방시설 점검 결과 교체 필요하다", "납품계약을 체결하겠다", "긴급하게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인다. 이어 특정 업체를 소개하거나

물품 대금을 대신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한다.

최근에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이메일뿐만 아니라 위조 공문서와 명함까지 활용해 실제 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접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만으로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계약이나 물품 구매 역시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을 경계하고, 기관 대표 번호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문자나 메시지로 전달된 링크는 함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작은 확인 한 번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임을 기억하자.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Advertisement for '감귤 신제품 분양' (Citrus New Product Distribution) for 2027, listing various citrus varietie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감귤묘목, 포트묘목 분양' (Citrus Seedling Distribution), listing products like Red Star and contact info for Minseongjungmyo.

Advertisement for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Jeju Telecom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y Hanra),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info for Hanra Jeonseol.

Advertisement for '티엔정보기술(주)' (Tien Information Technology), highlighting services like VOICE & 영상장비, NETWORK 설비, and ONE-STOP SYSTEM.